

물량 몰아주기는 어디까지 부당지원인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대주주나 그 자녀들이 세운 회사에 IT·물류·광고·구매대행·건설 등 일감과 거래를 몰아주는, 소위 '물량(일감) 몰아주기'가 최근 '공정사회' 논의와 더불어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산 순위 30대 그룹 중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46%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대주주 가족이 지배하는 글로벌비스에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당하고 관여 임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대주주 자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물량 몰아주기로 해당 비상장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고액배당이나 상장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모할 길이 열린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정부는 3월 말 세법을 개정하여 물량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물량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증여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신뢰를 침해하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소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단순히 거래규모가 크다고 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시기를 따르지 않은 부당거래를 대상으로 시기와 거래가액의 차이에만 과세하는 게 바람

직하다.

물량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도 규율된다. 즉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대상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제공한 주체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하면 된다.

다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고 당연히 위법은 아니며, 정상가격 내지 정상거래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이러한 지원행위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부당한 지원행위이다. 한편 계열사 간 거래는 비용절감·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으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는 지원을 제공한 회사의 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배임 등의 법적 책임이 생기기에도 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만을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자기거래로 규율하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회사와 이사, 주요 주주, 그 친족과 계열사 사이의 거래를 포괄하여 자기거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

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위 글로벌비스 사건에서 법원은 "물류업무가 자동차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회사가 물류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회유용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정 상법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사업,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유용대상인 사업기회로 정의했으므로, 대주주나 임원이 지배하는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면 상황에 따라 기회유용에 해당되기도 한다. 따라서 계열사 등과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주도 하에 거래를 진행하고 외부 자문을 얻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버클리대 법학박사(U.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문분야 M&A·사모투자·증권·금융·도산 등, KAIST 경영대학원 M&A 및 금융법 강사.